

■ '대운하 보고서' 변조 의혹 李-靑 난타전

“청와대·범여가 조작” “다른 것 덮으려 호도”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재검토 보고서 변조 논란이 일과만과 확산하는 양상이다.

누가 문제의 37쪽짜리 9쪽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또 누가 유포시켰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한 가운데 이 전 시장 측은 전날 공개된 9쪽짜리 건교부 보고서를 '재변조 보고서'로 규정하며 변조설을 조장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누가 변조했나=9쪽짜리 보고서와 37쪽짜리 보고서는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다만 총사입비나 운하 수송 시간 등 일부 통계수치가 다르다.

이 전 시장 측은 19일에는 37쪽짜리 보고서에 대해 "일부 수치만 다른 것으로 봐서 집권세력에서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및 범여권을 배후로 지목하는 분위기였다.

이 전 시장 선대위 박승환 한반도 대운하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건교부가 지난 19일 발 제출

李측 “이용섭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李장관 “유출 과정 등 경찰 수사의뢰”

대운하 9쪽 보고서·37쪽 보고서 차이점		
9P 보고서	비고	37P 보고서
정부유하 재검토 중간보고	제목	정부유하 재검토 결과보고
수자원 기획관실	작성주체	TF
1P	'최근동향' 별도 분량	2P
없음	'최근동향' 항목에 '환경단체 동향' 부분	있음
2월23일 이 전 시장 초청 정책간담회 까지만 포함	각종 세미나 사례	5월21일 '한반도 대운하 심포지엄' 까지 포함
17조원	사업비 예측치	18조원
48시간	운하 수송시간	46시간
39%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7%

한 보고서는 도저히 진실한 보고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미 유포된 37쪽짜리 변조된 보고서에 기초하여 사후에 만들어진 또 다른 변조 보고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처음의 변조 보고서 작성자들을 은폐하기 위한 '재

변조 보고서'로 규정했다. 박 본부장은 또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용섭 건교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

견을 자청, 재변조 의혹 제기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뒤 "9쪽짜리 대운하 보고서는 조작이나 변조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37쪽짜리 문서를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의도로 유포했는지 밝히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이 변조설을 조작" =청와대 문제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슨 '청와대 음모다'는 식으로 덮어씌움으로써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는 행태는 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시장 측의 의혹제기를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수법이라며 역공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또 정세브리핑에서 "회사서도 보고서 만들 때 다 듣고 축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서가 생산될 수 있고 데이터도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근거 없는 논리로 조작설을 키워 다른 것을 덮으려 한다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기자 tuim@kwangju.co.kr

임기말 대통령 발언권 위축 타개책

■ 靑, 선관위 결정 현소 강행 배경

적법성·타당성 여부 논쟁 불가피

청와대가 20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대응카드를 맞서기로 방침을 굳힌 것은, 이번 사안을 헌법재판소로까지 가져가 법적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소원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하다.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현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의 취지에 비추볼

때 공권력 행사의 최고당사자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갈 경우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을 비롯,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겠지만, 나아가 과연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논쟁까지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선관위 판단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경우 노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적 발언권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무력하게 노출될 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때 청와대 내부에서 대통령이 헌법쟁송 절차에 들어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에 대한 신중한 기류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선관위의 두 번째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 이후 법적 대응을 미룰 수만은 없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범여 3각’ 벌써부터 신경전

〈손학규-정동영-이해찬〉

孫 “기회주의자 발언 추가 더 치명타 될 수도”

鄭·李 “한나라 출신이란 것 지워지지 않을 것”

손학규-정동영-이해찬 등 반·비한나라당 후보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측은 앞서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을 공격함으로써 양자 대결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을 펴는 반면, 손 전 지사 측은 여유있는 자세로 기선제압을 시도하면서도 한나라당과 같은 난타전을 경계하고 있다.

손학규 진영의 정봉주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이 전 총리의 '기회주의자' 발언과 관련, "이 전 총리는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 전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손 전 지사를 공격하

는 것은 전 당원이다"며 "다만 한나라당처럼 그렇게 치명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 탈당에 대한 문제는 대선레이스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피할 생각은 없다"며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코 우리 역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히려 이 전 총리가 더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장 측 박영선 의원은 이날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을 개혁하려 다 실패했다는 데 과연 개혁하려던

업적이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서 "이 전 총리는 정동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새장 속에 갇힌 정동성이 다. 노 대통령,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신봉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진영의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SBS 라디오의 '백지연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손 전 지사가 그동안 만들어온 대중적 선호 등과 대결해야겠지만 실제로 범여권 후보 적합성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면 역사성·계승성·정통성 측면에서 이 전 총리가 대단한 강점이 있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것"이라고 이 전 총리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진행자가 '손 전 지사가 한나라 출신이란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역사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전 총리는 한걸음이 한 길을 걸어왔다"고 답했다. /백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한, 노대통령 검찰 고발 일단 유보

한나라당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고발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소비가 있는 발언을 계속할 경우 언제든지 검찰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압박을 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또 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사조직에 대한 검찰 수사 및 '한반도 대운하' 변조 의혹과 관련, 오는 22일 연합당 당사에서 '공제된 검찰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됐으나,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권의 총체적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캠프별 대응이 아니라 당이 단계별로 대응과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무위 BBK 주가조작 공방

국회 정무위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읍서널벤처스 코리아(BBK 투자자문의 후신) 주가조작 사건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연루 여부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이 전 시장이 읍서널벤처스 경영자인 김경준씨와 관계를 단절하기 전부터 주가조작이 시작됐고, 이 전 시장이 LK캐피탈 대표이사로서 재임하던 시절 이 회사 계좌가 읍서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수차례 동원됐다는 점 등을 들어 주가조작의 배후로 이 전 시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BBK가 읍서널벤처스로 바뀐 이후 이 전 시장은 읍서널벤처스와 전혀 연관이 없었다는 점과 검찰조사에서도 이 전 시장의 결백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당 의원들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던 금융감독위 측은 이 전 시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검찰이 미국 법무부에 보낸 김경준 범죄인 인도청구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읍서널벤처스 주가 조작은 이 전 시장이 김경준씨와 관계를 단절한 후 이뤄졌다는 이 전 시장의 주장은 거짓이었다"며 "이 전 시장은 2000년 2월18일~2001년 4월 18일 LK캐피탈 대표이사로서 근무했다고 회사 등기부 초본에 나와있는데 LK캐피탈 계좌로

우리 “추가 배후” 한 “정치 공작”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과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 사이에 40여 차례의 허수 매도주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이 이 전 시장 지지 의원들로 채워진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정관차원의 이명박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진수희), "단순 금융사기 사

건을 대선정국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왜곡,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김양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준형 금감위원장 등은 현재까지 서류상 드러난 바로는 이 전 시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7월 2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풀이 첫전도 개강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입빌딩 7F) **광양점** ☎ 971-0002 (중앙커뮤니티센터 4F) **첨단점** ☎ 795-0990 (빅마트 점단점 영주은행 4F)

**광주고시학원**

웰빙시대의 뉴-리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사**

전국 유일의 실 강의

- \* 공무원 가산점 3%, 농협중앙회 5%, 지역농협 10%
- \* 관련업체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에서 자금 지원
- \* 취업처: 농협,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업체 등

-1,2,3회 합격자 90% 이상 취업-

**A+ 현대고시학원**

(광주동부경찰서 옆) ☎ (062)236-2467

= '07년 합격이 가장 용이한 전남 교육행정직을 잡아라! =

**7.9 공무원 대특강**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 채용인원: 000명(약 50명) 이상 필듯, 합격에 절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 출원, 응시율 9.1% 경쟁이었다 ※

= 전남 일반행정직 10월13일 시험 시행 =

7월 2일 주 야반 모집 (현재 예약 접수중)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무등고시학원** ☎ 222-4560

www.mdgosi.co.kr

**삼성빌딩 임대**

층/별/안/내

- 7F 사무실
- 6F 146평 분할가능 농·연 및 사무실 용
- 5F 146평 분할가능 농·연 및 사무실 용
- 4F 146평 분할가능 농·연 및 사무실 용
- 3F 146평 분할가능 농·연 및 사무실 용
- 2F 남양알로에
- 1F LG텔레콤 임대 33평 / 골프웨어

★ 대형주차장 완비  
★ 병·의원 입주시 임대료 완료시 30% 할인  
★ 재개발지역 확정, 투자 가치 높음  
★ 1층 33평 (의류, 약국, 서점 등)

관리사무실 | (062)526-3140 H.P 010-8285-317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이론방학 7.9 공무원 대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신직, 보건직, 출입국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연성)** **7.9 문제풀이 (1개월연성)**

**농업직** 양승준 교수님 = **서울시 7.9 8월 시험장차 계약**

기간: 5월 1일 - 7월 31일까지 \* 운영료: 차량 2만원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7월 2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전직종 첫전도 = 사전예약접수중)